



광주 하늘 '나뽕' 미세먼지 농도가 '나뽕' 상태를 보인 22일 오후 광주 도심 일대 하늘이 뿌옇게 흐려 있다. 최근 들어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미세먼지 공습은 일상적인 모습이 되어 버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미세먼지 공습...숨막히는 광주·전남

주의보 올 네차례 '일상화'
병원·약국마다 환자 북새통
기상청 "이달 말까지 계속"

최근 서해를 건너 날아온 미세먼지가 광주·전남 상공을 뒤덮는 일이 잦아지면서 시민들이 각종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올 들어서만 광주·전남지역에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네 번이나 발령되고 황사도 발생하는 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 공습이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병원·약국은 치료를 받거나 약을 구입하려는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등 미세먼지

오염은 사실상 일상화한 상태다.

22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 광주 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PM2.5 기준)가 발령된 뒤 해제됐다. 이날 오전 광산구 오선동 미세먼지의 최고 농도는 106㎍/㎥으로, '매우 나뽕(101㎍/㎥ 이상)'이었다.

예보등급은 모두 네 단계로 나뉘는데, 좋음(0~15㎍/㎥)·보통(16~50㎍/㎥)·나쁨(51~100㎍/㎥)·매우 나뽕 등이다. 앞서 지난 18일과 19일에도 광주·전남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당시 최고농도는 177㎍/㎥을 기록한 나주시 빛가람동이었다. 이는 지난해 1월 광주·전남 평균(30㎍/㎥·23㎍/㎥)보다 최대 일곱 배 가량 높은 수치다.

문제는 미세먼지 여파가 당장 이달 말

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번 미세먼지는 조만간 북쪽에서 찬바람이 남하하며 대기의 정체를 풀어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게 기상청 측의 설명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공습은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일상을 바꿔놓고 있다. 지난 21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광주·전남지역 맘카페엔 '미세먼지가 최악'이라는 주부들의 글이 속속 올라왔다.

주부 박모(여·36)씨는 "공기청정기는 24시간 가동하고 아이들과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며 "아이 친구들도 미세먼지 때문에 유치원에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약국과 병원도 북새통을 이뤘다. 광주 모 이비인후과를 찾은 회사원 정모(40)씨는 "개당 530원 하는 마스크를 60개, 한 달

치를 사왔다. 마스크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글을 남겼다.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당분간 보내지 않겠다는 부모들도 많다. 광주 남구의 주부 박모(34)씨는 "첫째 아이를 유치원에 등원시킬 때 둘째도 데리고 다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라며 "최근엔 아예 아이들을 보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황사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건강관리를 위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올바른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폐기능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현송월, 서울 국립극장 점검...육로 통해 북으로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22일 서울에서 이틀째 일정을 대부분 소화했다.

전날 강원도 강릉아트센터를 2시간 이상 둘러본 점검단은 이날 서울에서는 국립극장에 1시간 이상 머물며 시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나머지 체육관 2곳은 전날 황

영조 체육관에서처럼 간단히 둘러봤다. 특히, 가장 규모가 큰 해오름극장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모습이었다. 무대와 객석, 분장실 등을 오가며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음향과 조명 상태도 확인했다. 오후 3시22분 극장을 나온 현 단장의 표정은 앞서보다는 밝아 보였다.

사전점검을 마친 점검단 일행은 오후 3시 48분 만찬 장소인 서울시 광진구 위커힐호텔에 도착했으며, 이곳에서 저녁식사 후 출발해 도리산 남북출입사무소로 이동한 뒤 북으로 들어갔다.

앞서 점검단이 도착한 서울역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국내외 취재진이 몰려 열린 취

재경쟁을 벌였다. 점검단은 서울역에 도착한 뒤 전날처럼 주차장 옆 통로를 이용해 역을 바로 빠져나왔고, 폴리스라인 사이로 이동해 버스에 올랐다. 점검단 도착 당시 대한애국당이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공기와 한반도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버스로 이동하던 현 단장은 시위 장면을 힐끗 바라보는 듯했으나 '소각 퍼포먼스'는 점검단 버스가 출발한 뒤 진행돼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뉴스초점 -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 성공 3대 과제

①경기장 설계·시공 마무리 ②숙박시설 부족 문제 해결 ③대한수영연맹 빠른 정상화

수영 마라톤 오픈워터 경기
여수시와 협의 문제도 남아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 개막 전에 서둘러 경기장 설계·시공을 마치고, 광주지역의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등 이번 대회 성공을 위한 과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광주세계수영대회조직위원회는 (이하 조직위) 국제수영연맹(FINA) 대표단과 경기장 위치 등을 최종 결정했지만 경기장 공사기간이 촉박한데다 한국수영연맹도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여서 대회 흥행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22일 조직위는 "내년 4월까지 경기장 시설을 모두 마무리하는 등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오는 2019년 7월 12일 개막하지만 앞서 FINA의 요청에 따라 같은 해 5월 조선대학교 운동장에서 '하이라이브 테스트 이벤트 대회'를 열기 때문에 대회 준비 시간이 더욱 짧아졌다. 특히 학교 운동장 등지에 초대형 수조를 만든 뒤 배관 공사를 하고, 주변에 관중석을 설치해야 하는 공정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조직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날 조직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경기장 기본설계를 늦어도 7월까지 마무리한 뒤 9월에는 공사 발주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선수 선발 과정의 비리 문제로 임원들이 징계를 받은 대한수영연맹의 조속한 정상화도 대회흥행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광주를 찾은 FINA 측은 이 문제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한국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제 기

량을 발휘하지 못하면 자칫 대회 흥행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FINA측은 "한국 선수의 훈련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돕겠다"는 뜻도 조직위에 전달했다.

광주지역의 부족한 호텔객실도 걱정거리다. 현재 FINA측에서는 대회기간 관계자 투숙을 위해 필요한 객실을 500실로 잡고 있다. 하지만, 광주지역 호텔 객실은 200여실을 불과하고, 이마저도 FINA측에서 시설미비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영 마라톤'이라 불리는 오픈워터가 치러지는 여수시와의 원활한 협의 문제도 남아 있다. 애초 오픈워터는 장성호가 유력 개최지였는데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해 여수엑스포공원으로 확정된 상태로, 현재 조직위는 여수시와의 개최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또한 개막을 앞두고 FINA측이 오픈워터가 치러지는 여수엑스포공원 일대의 수온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수온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개최지를 또 변경해야 하는 등의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직위 조영택 사무총장은 "경기장 장소 문제가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시설 구축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며 "대회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세계수영대회는 2019년 7월 12일부터 8월11일까지 31일간 진행되며 207개국 선수와 임원 등 1만5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국가대표들이 참가하는 선수권대회는 7월12일부터 28일까지 17일 동안, 수영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즈선수권대회는 7월29일~8월11일 14일간 열린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자치구 경계조정 본격화 ▶2면

아이가 꿈이다-광주 실태 ▶18면

KIA 오킨와 캠프 55명 참가 ▶20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로자-사틴 스킨,
눈부신 피부의 새로운 기준

헤라 로자-사틴 크림

속은 촉촉하고 겉은 보드라운 장미 꽃잎 같은 피부, 로자-사틴 스킨
섬세한 결게어로 완성한 이상적인 피부 컨디션입니다
로자-사틴 콤플렉스"를 함유한 크림이 선사하는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결로
메이크업을 더욱 빛나게 하는 최적의 스킨을 경험하세요

HERA

전국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hera.com / 고객센터상담: 080-023-5454 (수신자요금부담)